

한국, 태국에 '골 폭탄'

AFC 여자아시안컵 축구서 11대0 대파 정정숙 '나홀로 6골'...한정기 최다골 기록

한국 여자축구가 혼자 6골을 쓸어 담으며 역대 한 경기 최다골 기록을 세운 공격수 정정숙(24·대교)의 활약을 앞세워 태국을 대파하고 월드컵 본선 진출의 희망을 살려냈다.

안종관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20일 호주 에들레이드 하인드마시 경기장에서 열린 200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정정숙이 혼자 6골을 몰아넣는 등 소나기골을 퍼부으며 태국을 11-0으로 대파, 1승을 챙겼다.

2007년 중국 여자월드컵 출전권이 걸린 이번 대회 호주와 1차전에서 0-4로 일격을 당했던 한국은 태국을 제물 삼아 자신감을

되찾으며 월드컵 출전 가능성을 이어갔다. 한국은 1승1패로 2승의 북한, 호주에 이어 3위로 올라섰다.

정정숙의 6골은 종전 차승미와 박은선이 갖고 있던 4골을 넘어선, 역대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 한 경기 최다골 기록이다.

전반 7분 차연희의 골이 오프사이드 선언이 되는 등 한국은 경기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지만 첫 골은 쉽게 터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반 30분 차연희의 선제골을 신희환으로 릴레이 골이 쏟아지며 호주전 영패의 분위기를 했다.

한국은 전반 38분 정정숙이 차연희의 패

스를 받아 추가골을 성공시킨 뒤 김주희와 차연희의 연속골이 눈 깜짝할 새 터지며 전반을 4-0으로 끝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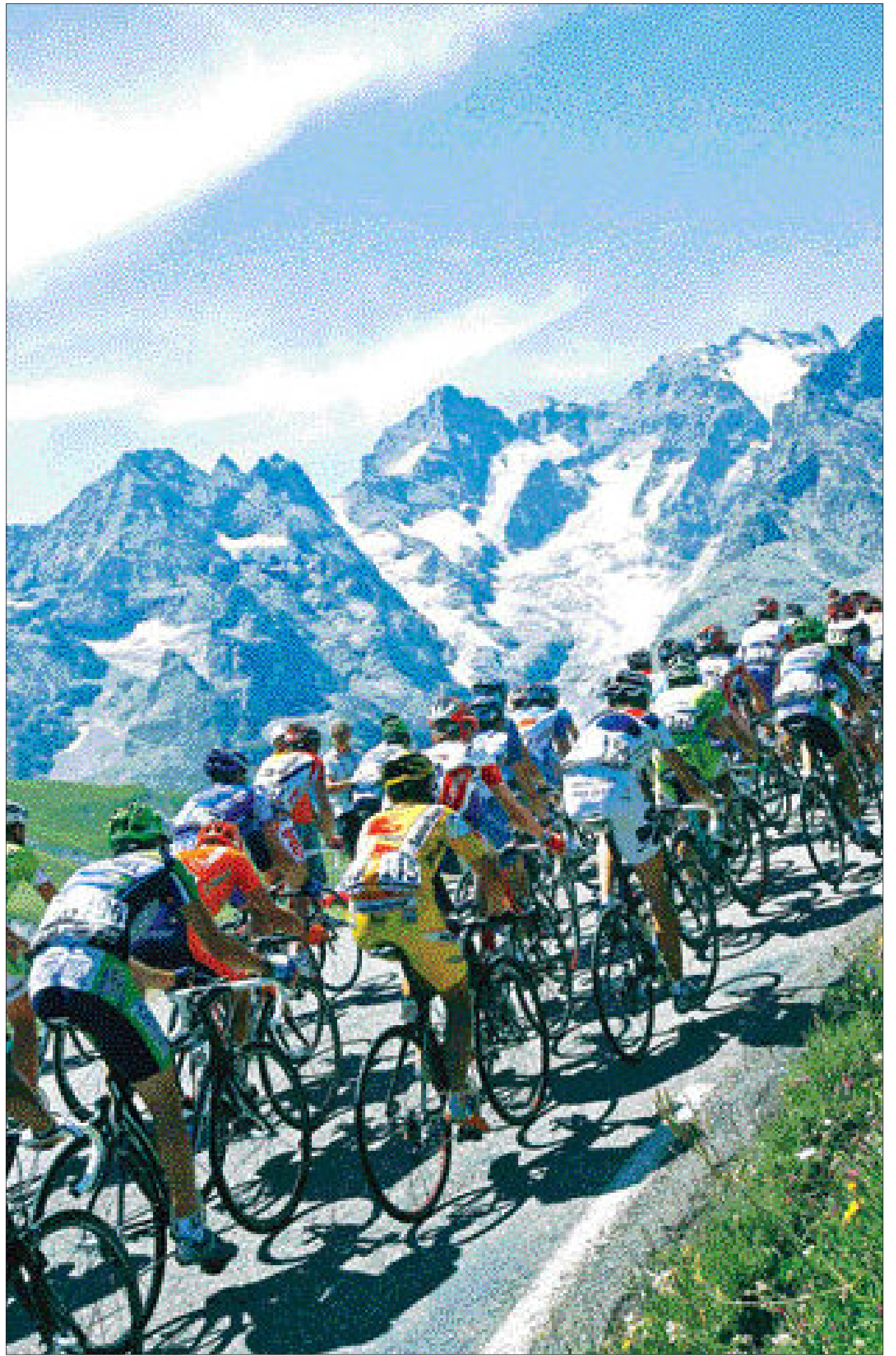
후반 들어서도 4분 만에 정정숙이 다시 득점포를 가동한 뒤 후반 24분 김진희의 추가골을 터져 나왔다. 이어 정정숙은 후반 25분부터 15분 동안 무려 4골을 더 몰아넣었다. 후반 41분엔 정정숙의 패스를 받은 정세화까지 골 찬치에 가담하며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은 22일 미얀마와 같은 장소에서 3차전을 가진다.

한편 같은 조의 북한은 앞서 열린 경기에서 전반 리은숙의 두 골과 후반 리은경의 추가골로 미얀마를 3-0으로 누르고 2연승을 달렸다.

북한은 호주와 승점은 같아졌지만 골득실차(북한 +12, 호주 +6)에서 앞서 조 1위를 지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못 오를 곳 없다” 2006프랑스도로일주 사이클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20일 프랑스 르 부르그-뒤상스에서 라 튀쉬르까지 이어지는 제16구간 중 가장 힘든 알프스 코스를 넘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내일 광양서 맞대결 전남



“형제에는 잠시 접어들자” 프로축구 광주-전남이 양보할 수 없는 ‘형제간’ 한판 대결을 벌인다.

광주 상무와 전남 드래곤즈는 22일 오후 7시 광양전용구장에서 프로축구 삼성하우젠컵 2006 11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지난 19일 수원 삼성전에서 0-2로 패한 광주는 3승2무 5패(승점 11점)로 12위에 머물러 있다.

전남은 월드컵 휴식이 이후 부산, 경남에게 모두 0-1로 패해 3위에서 8위(4승2무4패·승점 14점)로 밀려난 상태다.

최근 두 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고전중인 전남은 긴급 처방으로 이번 광주전에 지난 19일 수원서 영입한 공격수 산드로(26)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맞선 광주는 2003년 K리그 참가 이후 광양 원정무승, 역대 상대 전적 1승4무6패, 최근 6경기 무득점 등 표면적인 성적은 크게 뒤진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광주는 지난 15일 광주 홈에서 ‘형제 합작’

■ 삼성 하우젠컵 2006 중간순위 (20일 현재)

| 순위 | 팀 | 승점 | 승 | 무 | 패 | 득 | 실 | 차 |
|----|----|----|---|---|---|----|----|----|
| 1 | 서울 | 23 | 7 | 2 | 1 | 17 | 8 | 9 |
| 2 | 성남 | 18 | 5 | 3 | 2 | 12 | 8 | 4 |
| 3 | 제주 | 17 | 5 | 2 | 3 | 10 | 7 | 3 |
| 4 | 포항 | 16 | 5 | 1 | 4 | 14 | 14 | 0 |
| 5 | 대전 | 14 | 3 | 5 | 2 | 9 | 7 | 2 |
| 6 | 부산 | 14 | 4 | 2 | 4 | 12 | 11 | 1 |
| 7 | 전북 | 14 | 4 | 2 | 4 | 12 | 12 | 0 |
| 8 | 전남 | 14 | 4 | 2 | 4 | 10 | 10 | 0 |
| 8 | 울산 | 14 | 4 | 2 | 4 | 10 | 10 | 0 |
| 10 | 경남 | 13 | 4 | 1 | 5 | 12 | 14 | -2 |
| 11 | 대구 | 11 | 2 | 5 | 3 | 13 | 16 | -3 |
| 12 | 광주 | 11 | 3 | 2 | 5 | 8 | 11 | -3 |
| 13 | 수원 | 7 | 1 | 4 | 5 | 6 | 12 | -6 |
| 13 | 인천 | 6 | 1 | 3 | 6 | 9 | 14 | -5 |

골’을 기록한 남궁웅-남궁도를 투입으로 내세우고 정운성을 최전방에 배치, ‘전남 징크스’를 떨쳐내겠다는 각오다.

이밖에 ‘선두’ 서울은 ‘골짜기’ 인천을 홈으로 불러들여 추가승을 노리고, 제주는 서귀포에서 성남과, 울산은 문수경기장에서 대구와 맞붙는다. 부산과 전북은 각각 홈에서 경남, 포항과 격돌한다. 수원은 ‘태극전사’ 김남일과 송종국, 조원희를 앞세워 5위 대전과 중원권 도약을 위한 대접전을 치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설기현 레딩 데뷔골

두번째 경기 1골 1도움

“첫골 넣어 자신감 생겨”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3호’로 레딩FC에 입단한 설기현(27·왼쪽)이 데뷔골을 터뜨렸다.

설기현은 20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노턴츠에서 열린 네이션스리그와 이드 컨퍼런스(5부리그) 리시텐 다리아몬즈와 원정 친선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20분 동점골을 뽑아내며 팀의 3-2 역전승을 이끌었다.

레딩은 전반 13분 리시텐의 존 에시턴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설기현이 전반 15분 미드필드 왼쪽에서 수비수 2명을 제치고 슈팅을 시도하며 반격에 나섰다.

설기현은 5분 뒤 글렌 리틀의 코너킥이 올라오자 문전으로 쇄도한 뒤 오른쪽 사각에서 강슛을 때려 골문 우측 상단을 꿰뚫었다.

역전골도 설기현의 발끝에서 나왔다. 후반부터 왼쪽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위치를 바꾼 설기현은 후반 14분 코너킥 키퍼로 나서 이브라히마 송코의 헤딩 역전골을 어시스트했다.

지난 15일 디즈코트 타운FC와 친선경기에 처음 출전해 1도움을 기록한 설기현은 레딩 입단 이후 두번째 출전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는 맹활약을 펼쳤다.

설기현은 수비에도 적극 가담했고 후반 16분과 21분 헤딩슛과 중거리슛을 시도한 뒤 후반 26분 스코트 데이비스와 교체 아웃됐다.

설기현은 경기 직후 “첫 골을 넣어 기쁘다. 새 팀에서 점점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남일 인기 ‘짱’

K-리그 올스타전 팬투표

9만9천975표 얻어 1위

‘진공 청소기’ 김남일(수원)이 국내 최고 인기 축구 선수로 부상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오는 8월20일 인천 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06 삼성하우젠컵 K-리그 올스타전 팬투표 1차 중간집계(7월19일 낮 12시 현재)에서 김남일이 참가자 12만2천901명 가운데 9만9천975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2위는 9만6천666표를 획득한 김영광(전남)이, 3위는 9만5천148표의 이천수(울산)가 차지했다.

득표 순위 상위 10위 내에는 2006득점 월드컵 축구대회 이후 K-리그에 복귀한 선수가 8명이나 포함돼 ‘국가대표팀’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났다.

대표팀에 들지 못한 최성국(울산·8만3천817)과 이관우(대전·6만9천555)는 각각 6위, 10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05년 올스타 팬투표에서 1위에 올랐던 박주영(서울)은 7위(서울·7만9천458표)에 머물렀다.

올해 두번째로 실시하고 있는 감독 팬투표에서는 차범근 수원 삼성 감독(6만



7천377표)와 허정무 전남 드래곤즈 감독(4만1천97표)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선두를 다투며 중부팀과 남부팀 감독 후보 1순위에 뽑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경주 “바꾼 퍼팅 그림...예감 좋다”

브리타시오픈골프대회에 일곱 번째 출전하는 ‘뱅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는 20일(이하 한국시간) “그림을 바꾼 덕에 퍼팅이 좋아졌다”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경주는 마지막 연습 라운드를 마친 뒤 “아주 컨디션이 좋다”면서 “1라운드부터 좋은 스코어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최경주는 최근 퍼팅 그림을 ‘집게발 그림’으로 바꿨다고 소개하고 퍼팅에 자신

집게발 그림으로...거리조절 수월

감이 부족 늘었다고 말했다.

2년 전 집게발 그림을 배웠지만 실제로 사용한 것이 이번이 세번째라고 밝힌 최경주는 전에 퍼팅 때 오른손이 앞서나가는 실수를 종종 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퍼팅 때 볼의 구름이 훨씬 나아지고 거리 조절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올해 들어 마스터스와 US오픈에서 잇따

라 컷오프 탈락하는 등 메이저대회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던 최경주는 스윙 개조에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라면서 “미흡했던 부분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최경주는 “지난 두 차례 메이저대회 때에 비해 이번 대회에서는 자신감이 훨씬 커졌다”면서 “그때 겪었던 어려움은 모두 극복했다”고 거듭 자신감을 피력했다.

코스에 대해 최경주는 “굉장히 딱딱하고 그린도 까다롭다”면서 “페어웨이 벙커를 피하는 티샷이 중요하다”고 평했다.

강지만 ‘최장타자’

올해 상반기 한국프로골프 SBS코리아 투어에서 최장타자는 강지만(30·동아회원권)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프로골프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열린 5개 대회에서 측정된 각종 기록을 분석한 결과 강지만은 평균 드라이버샷 비거리 295.6야드를 날려 1위에 올랐다.

박용수(35)가 295.1야드로 뒤를 이었고 최연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멤버

버로 각광받다 올해부터 한국에서 뛰고 있는 타이 트라이언(미국)이 293.3야드로 3위에 올랐다.

최장타의 영예는 메리츠 솔로모오픈 1라운드 2번홀에서 박노석(39·대화계약)이 때린 360야드.

한국에서는 선수들 비거리를 올해 처음 재기 시작했으며 통계 편의상 5개 대회 가운데 3개 대회 이상 출전한 선수의 기록만 통계에 잡았다.

평균 드라이버샷 295.6야드 1위

한국프로골프협회 올 상반기 결산

그러나 국내 선수 비거리는 PGA 투어 선수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새삼 확인됐다.

PGA 투어 최장타자는 평균 318.9야드를 때린 부바 왓슨(미국)이며 평균 비거리가 300야드를 넘는 선수만 12명에 이르고 있다.

국내 최장타자 강지만은 PGA 투어에서는 43위에 해당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